

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바베슈 보예이 대학교	성명	한글	킬레레스쿠 알렉산드라	생년월일	1995 년 11 월 08 일
	영문	BABES BOLYAI		영문	CHILARESCU ALEXANDRA	학년	3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눔
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조화
롭게 공존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
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. 인간들은
수천 년 동안 계속 진화하고 사회적인 존
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
혼자서 할 수 없는 것 같다. 사람들
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
고 응원도 필요한다. 어떤 일을 할
때마다 다른 사람과 그 힘과 부담을 나
눌 수 있는 편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
각한다. 하지만 그 것을 하기 위해
이해와 배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
. 오늘날의 사람들은 독립의 중요성을
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. 독
립적으로 살기 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
있어서 배려의 중요성을 점차 잊어버
리고 있는 것 같다. 다른 사람들과
할 일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
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다른 사
람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지 이해하
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
. 현대적인 사회는 옛날의 사회와 비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바베쉬 보여이 대학교	성명	한글	칠러레스쿠 알렉산드라	생년월일	1995 년 이 월 09 일
	영문	BABES BOLYAI		영문	CHILĂRESCU ALEXANDRA	학년	3

100

200

300

400

500

고 하면 훨씬 더 바쁘고 사람들이 배려
 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다. 배려가
 없이 사람들이 나눔의 중요성을 어떻게
 게 알 수 있는가? 내 생각에는 오늘
 날의 사람들은 조금 무시하게 살고 있
 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
 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다. 인간들은
 인류의 시작부터 불 근처에 모아서
 이런 사회적인 존재가 되었다. 옛날에
 남성들은 식량을 구했고 여성들은 아
 이와 집을 챙겼다. 이렇게 먹할 줄 나
 누서 같이 사는 것은 훨씬 더 시워졌
 다. 그 것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
 사회적이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만 랑
 상 다른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갈망
 하고 있다.
 그러면 왜 나들이 그렇게 중요하고
 필수적인가?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
 랑들과 무뎌짐을 나누는 수 있는가? 내
 생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른
 사람들과 나누는 것. 예컨대 친구와 행
 복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. 좋은 일이 생기
 면 내 친구와 얘기하고 싶고. 좋지 않
 은 일이 생기면 걱정을 나누고 내 슬
 픔을 없애기 위해 친구가 나를 달랜다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바베슈 보예이 대학교	성명	한글	킬레레스쿠 알렉산드라	생년월일	1995 년 이 월 03 일
	영문	BABES BOLYAI		영문	CHILARESCU ALEXANDRA	학년	3

100

200

300

400

500

걱정을 할 때마다 엄마와 아버지의
 응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모님
 이 내 곁에 항상 계시를 거라서 힘이
 낸다. 다른 사람과 슬픔과 걱정을 나
 누는 것은 이런 대단한 힘이 있다고
 생각한다.
 다른 사람들과 슬픈 것과 힘든 것도
 나누기만 행복과 좋은 기억도 나눌
 수 있다. 여행을 다가는 것, 음악회에
 가는 것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
 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더
 즐겁다고 생각한다. 이 좋은 것을 함
 께 하면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고
 사람간의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
 다.
 하지만 친구와 가족과 좋은 것을 아
 니면 슬픔을 나눌 수 있지만 모르는
 사람과 그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
 한다.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
 나중에 그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
 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. 이 것은 바
 로 사회에 사는 방법이요 공존하는 것
 이다. 공존하는 것이 사람들의 우선순
 위였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배려가
 있게 살 것이 다. 오늘 날에는 어딘지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바베쉬 보이어 대학교	성명	한글	킬레레스쿠 알렉산드라	생년월일	1995 년 11 월 08 일
	영문	BABES BOLYAI		영문	CHILARESCU ALEXANDRA	학년	3

나 능 이 라는 것 이 있 지 만 바 뵈 는 사 회
 때 문 에 사 람 들 이 나 능 의 중 요 성 을 잊 어
 버 린 다 . 힘 들 때 어 떤 사 람 과 애 기
 해 야 하 고 행 복 할 때 다 른 사 람 을 행 복
 하 게 만 들 고 , 도 움 이 필 요 하 는 사 람 을
 보 면 무 시 하 지 않 고 도 와 주 야 한 다 .
 아 직 힘 들 때 감 정 을 숨 기 지 않 고 마
 음 껏 울 고 쟁 피 하 지 않 았 으 면 즐 겠 다 .
 우 리 가 사 람 이 라 서 다 른 사 람 에 게 무
 외 국 감 정 을 보 여 주 고 그 사 람 의 마 음 도
 이 해 기 위 해 노 령 하 야 한 다 그 생 각 한
 다 .